

야곱의 장례

야곱의 장례는 이집트의 국장(國葬)으로 치루어졌다. 시신은 향으로 처리하는데만 사십 일이 걸렸고 국장 기간은 모두 칠십 일이었다. 이 기간동안 이집트 사람들은 위대한 총리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애도했다. 시신은 이집트 방식으로 엮을 하였지만 매장은 가나안에 해야 했다. 야곱의 유언이었다. 파라오는 요셉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장례행렬의 규모는 가나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장례를 위해 애굽을 나섰고 야곱은 유언대로 막벨라 굴에 묻혔다. 야곱의 장례 이후 출애굽 사건 이전까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이집트를 벗어나지 못한다.

형들의 불안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불안해졌다. 눈치 볼 아버지도 없으니 이제 요셉의 복수가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형제가 재회한지 십칠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려움에 빠진 형제들이 요셉에게 말을 전한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 창세기 50:16

형들은 요셉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 죽은 아버지를 빌미로 요셉을 설득한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요셉에게 말을 전달한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 창세기 50:17

야곱이 죽기 전에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형제들의 지난 삶에 생각해보면 그다지 믿어지는 말은 아니다. 언제부터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일단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요셉이 울기 시작한다.

형들 앞에서 터져버린 요셉의 두 번째 울음이다.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때 이후 처음이다. 왜 울었을까. 아버지를 끌어들이 요셉을 설득하려는 형들이 애처로웠을까. 이미 용서한 일인데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슬펐을까.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웠을 때 처럼 자신들을 요셉의 종으로 자처하는 형들을 요셉이 위로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 창세기 50:20

위로

요셉은 전에도 동일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었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시오, 한탄하지 마시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지요. 요셉은 형들을 해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도 완전하게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형들을 위로한다.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할까?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용서를 빌며 위로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성경의 상식은 우리의 생각 범위를 벗어난다. 위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 피해를 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출애굽을 생각하며 죽다

요셉은 죽는 날까지 형제들과 함께 살았다. 그에게 형들은 ‘아버지의 가족’이었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다. 요셉의 삶은 풍요와 안정 가운데 끝맺음 되었고 그가 어려서 꾸었던 꿈들은 모두 실현되었다.

요셉은 유언을 통해 앞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죽었다. 사백삼십 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내시며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그 날, 곧 출애굽의 날에 내 뼈를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었다. 그리고 이 유언도 요셉이 어려서 꾸 꿈이 이루어졌듯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 창세기 50:24-25**